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례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66:18-21	제2독서	히브리서 12:5-7, 11-13	복음	루카 13: 22-30
--------	------	---------------	------	--------------------	----	--------------

◎말씀 <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

언제부터인가 성물방 한편에 오래된 십자고상이며 성모상 등 성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냉담하시던 분들이 이제 성당에 안다닌다고 성물들을 반납(?)하고 간 것들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세례성사를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왜 하느님을 안 믿는다고 십자고상이며 성모상이며 성경까지 버리는 것일까요?

몇 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형제님은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돼서 그런지 항상 활력이 넘치고 다른 형제들과 모임을 하더라도 앞에서 이끌고 밥값이며 술값이며 계산도 곧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업이 부도가 났고 지금은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서 매우 어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과 어렵게 연락하여 만나 물었더니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큰 복은 못 주시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더 이상 하느님을 안 믿을 것이니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히브12,7) 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경우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런 분들이 가져다 놓은 성물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날 한 형제님께서 전화로 갑자기 ‘신부님 만나서 성사를 받고 싶다.’ 고 하면서 지금 성당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님께서 위암 진단을 받고 지금 수술 받으러 입원하려 가는데 병자성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다행히 그 형제님은 빨리 회복하여 일상에 복귀하였는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레지오며, 단체 활동이며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히브12,11) 이러한 훈육을 참고 견디는 이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원 받을 사람이 적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8월27일(화)	성 모니카 기념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1,985.00 \$ 769.00
8월28일(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미사없음	미사예물 성소후원	\$ 375.00 \$ 156.00
8월29일(목)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119.00 \$ 29.00
8월30일(금)	연중 제21주간 금요일	미사없음	기타수입 성모승천대축일	\$ 380.00 \$ 428.00
8월31일(토)	연중 제21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4,917.00
9월 1일(일)	연중 제22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6명 성인: 199명
교무금 봉헌자	장석자(9-10월)지동순(7-8월)조영진(4-8월)박종윤(5-7월)안기창(7월)김창영.우순이.김에릭.김채홍 신영후.박을생.양경민.황호민.지영욱(8월)염상보(9월)윤재경(10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 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와 결탁, 타협할 수 없다 ‘- 프란치스코교황 연중제20주일 가르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루카12, 49-53)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정적 선택의 때와 일치합니다. 곧 복음을 위한 선택은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면서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49)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게으름, 무감각, 무관심의 태도와 닫힌 마음을 버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느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로마 5,5)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벗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당신의 뜨거운 열망을 드러내십니다. 곧, 세상에 아버지 사랑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은 삶에 불을 지피고 그 불을 통해 인간이 구원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불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복음의 증거는 불태움입니다. 온갖 형태의 자기중심주의를 불태우고 가장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우선시하며, 모든 이에게 열린 사랑을 지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피신 사랑의 불에 대한 믿음은 우리 존재 전체를 휘감습니다. 또 하느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섬기려는 기꺼운 자세도 요청합니다. 하느님 경배와 이웃에 대한 봉사, 즉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복음은 우리 각자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각자를 구원하는 진정한 불처럼 드러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1) 그분께서는 ‘불로써 갈라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갈라놓으십니까? 악에서 선을, 불의에서 정의를 갈라놓으십니다. 이러한 의미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 제자들의 삶을 위기에 놓기 위해, 그러나 구원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속주의를, 그리스도인의 삶과 온갖 종류의 타협을, 종교적 신심실천과 이웃을 반대하는 태도를 결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신심과 미신이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손금을 보기위해 점쟁이에게 갑니까! 이는 미신입니다.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일관된 선택의 값을 치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란 태도는 각자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복음과 일치되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본질적 사랑인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예수님이 지피 주신 불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삶으로 그 사랑의 불을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최이주. 베아타 이규청. 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 그레고리오 배미성. 오틀리아/박모란. 글라라/원헤리나. 헬레나 고공자. 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황순이.마리아의 영혼	황성연.안토니오	생	김평옥.모니카의 가정	박.율리아
연	이정은.수산나의 영혼	이진행.베드로	생	임혜숙.그라시아, 김정애.헬레나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생	성문선.모니카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간
장
중
지


◎네가 누구냐◎

내 지금 가난하여도 이 눈빛 내 님이 알고
이 영혼 내 님이 짙어 바닷가의 한 알 모래로
내 여기 있어도 ...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p>성 명: 전노아 출생일자: 2019년6월 18일생 가족관계: (부) 전기주.안토니오 (모) 양지연.이냐시아 (형) 전재민.미카엘 구 역: 8구역</p>	<p>윤지영.비오 윤귀순 (이상 6구역)</p>
---	---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예비신자 교리반 시작(성탄반)
매주 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예비신자를 계속해서 인도해주세요(8월말까지)
지속적인 전교를 실천합시다.
- 모임안내
사 목 회:25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연 령 회:25일(일)오후1시.마태오방
여성단체장:25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거룩한독서:28일(수)오후6시30분.성당
구역장회의:9월1일(일) 오후1시.엘리사벳방
- 구역모임 및 구역미사(8구역)
일시:9월13일(금)오후7시.적극적인 참여바래요.
1구역(10명);추후공지
2구역(11명);14일(토)오후6:30,최범준
5구역(16명);6일(금)오후7시.성.다미아노
6구역(21명);11일(수)오후7시.오아시스햄버거
7구역(8명);8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8구역(17명);8일(일)교중미사후.요한방
9구역(10명);13일(금)오후7시,박문교(구역미사)
10구역(10명);13일(금)오후6:30,장수영
- 본당신부님 휴가
일시:18일(일)-30일(금)
평일전례;화.목요일(말씀의 전례) 부제님
주일미사:25일(일)9시/11시. Edward Pepka신부님
- 본당 재정감사
일시:28일(수)오후7시.사무실
- 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일시:9월8일(일)오전11시.성당
(미사전 합동연도있으며 미사중 가족분향있음)
조상님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신청:사무실or전례부장)
- 본당의 날 행사안내
일시:9월8일(일)오후1시.친교실
미사후 식사나눔과 빙고게임.라플/경품추첨
노래이어부르기등 (개인별 라플2장씩 무료증정)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세요
도네이션:송돈희(\$300) 감사해요.

- 레지오 일일피정
일시:9월14일(토)산호세성당.6시30분 출발
주제:레지오 단원의 성모신심 문의:윤재경
- 청년회 피정 (문의:최스텔라(카톡:steljchoi))
일시:9월21일(토)-22일(일) 장소:Lake Tahoe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해요.
- 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 후원위한)
일시:10월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
도네이션:김용문(Golf Shoe Bag 8개) 감사해요.
- 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일시:10월12일(토)오전8시-오후1시.성당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전비아(혈당측정기외) 감사해요.
- 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 신청 및
장례준비절차 상담안내
문의:고원석.바로로(916-813-4440)
- 감사합니다
사제관건축(도네이션):김양순(\$200)
북가주성령대회를위해 봉사하신 찬미팀과
참석자 모든분들께 감사드려요

<주일/한글학교 소식>

- 주일학교 등록 및 접수
기간:8월25일(일)-9월7일(토)성당.미사전후
Youth Leadership Seminar 첫모임
일시:8월25일(일)오전10시-정오.성당
대상:고등학생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 학부모 연수 안내
일시:9월7일(토)성당
대상:모든 주일학교 등록학생 학부모님들
내용:새로 바뀌는 '학부모 주일학교 수업'
On Fire(Diocese Youth Day) 안내
일시:9월14일(토)오전9시-오후9시
대상:본당 고등학생/청년부 문의:김형일

- 식사봉사(이번주);각구역장 보조:이서향
- 식사봉사(다음주);성령기도회 보조:신부님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화답송



너희는 온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전례봉사	연중 제21주일(8월25일)	연중 제22주일(9월1일)	연중 제23주일(9월8일)	연중 제24주일(9월15일)
해설	임상일.프란치스코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오민정.크리스티나
제1독서	김미해.세레나	이재덕.스테파노	김도철.베드로	구준모.요한
제2독서	진엘리사.엘리사	이은희.요세피나	김진영.말따	김준희.키아라
복사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임상일.박병수.안혜숙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